

No. 33 아프리카 선교이야기

사랑하는 이여 나는 당신을 쉬게 하고 싶습니다.
피곤에 지친 당신을 가을의 부드러운 무릎위에 높히고
나는 당신의 혼속으로 깊이 들어가 오래오래 당신을
잠재우는 가을바람이고 싶습니다. - 이해인 -

가을은 어쩔 주님의 뒤태를 닮은 듯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쉬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낙엽 하나에도 사연을 수놓으려는 감성이 꿈틀거리고, 그런가하면 겨울을 향한 부지런한 손놀림이 있습니다. 이 가을 비록 상상 속에 더듬고 있지만 수의를 준비하는 숙연함으로 그분 앞에 가까이 다가서기를 빌어봅니다.

분명 사계를 경험하는 땅은 축복의 산물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가을을 모르니까요. 이제 이곳은 잠깐의 시원함을 뒤로하고 더위가 일어서고 있습니다. 소우기가 좀 급했던지 이마를 내어 땀입니다. 그 덕분에 책상에 앉아 동역자들을 향한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유치원

어린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을까? 어린이가 차고 넘치는 땅! 분명 자원중의 자원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눈동자는 더욱 맑고 빛이 난다. 찬양을 흥얼거리는 그들 영혼 속에서 미래를 짐작한다.

이제 12월7일 제 1 회 11명의 졸업생이 배출된다. 벌써 전교생이 졸업식 연습을 한다고 시끌벅적이다.

지난 5월 한 달간 봉사를 왔던 혜진 자매가 매달 용돈을 아껴 학비 보조금으로 보내기로 약정(월3만원)하고 헌금을 보내와 졸업생 중 최우수 학생에게 장학금 전달식을 할 예정이다. 우리 아이들 가정이 모두 넉넉하여 학비를 챙기는 것이 아님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다. 우리부모와 똑 같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아껴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맘 왜 모를까. 그나마 학비도 최소한의 학교 운영을 위하여 책정하였지만 그마저도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바라기는 많은 동역자들이 일대일 자매 결연을 맺어 학비를 후원함으로 아이들이 주의 사랑 안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주의 군사들로 자랄 수 있기를 소원해 본다.



지금껏 가슴으로 키운 아이들이기에 그만큼 기도도 염려도 많았다. 이들을 계속 하늘 은혜의 도가니에 머물게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참 많다. 얼마 전까지는 법의 잣대가 느슨해 4학년 국가 시험을 보기 전 까지만 학교등록이 마무리되면 됐지만 이제 교육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학교는 입학생을 받지 말라는 준엄한 명이 하달되고 1학년부터 모든 학생의 이름을 교육부에 등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쥐어짜는 듯하다. 모든 행정은 인터넷으로 통한다. 너무 급하게 변하고 있다. 인터넷 망이나 전기사정이 따라줘야 하는데...

9월 중순 집사람이 밤새 문서작업을 해서 군청교육담당과에 서류를 제출했다. 다음 날 연락이 왔다. 결재가 되었으니 찾아가란다. 어~ 이런 경우가? 며칠 지나지 않아 도 교육청에서 현장 감사를 나왔다. 그리고 다음날, 역시 결재완료! 사람을 놀래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그리고 보면 참 믿음도 적다. 그 문제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놀라고 있으니 말이다.

이젠 교육부 결재만 받으면 되는데 여긴 더 많은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잘 진행되다가 아이구 암초를 만났다. '건축공정 75%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 규정, 현재 좀 인심을 써도 45% 정도 되는데... 일단 진행을 멈췄다. 물론 공사는 기둥을 세우며 열기를 더하고 있지만...

며칠 전 군 교육 담당에게서 연락이 왔다. 면담을 하니 일단 졸업생 명단은 근동의 등록된 학교에 올려놓고 공부는 솔로몬에서 계속 하게하며 우리 학교가 등록절차가 마쳐지면 명단을 복귀시키면 된단다.

참, 방법이 있긴 하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푸는 이유는? 아직 많은 공무원들이 뇌물을 좋아한다. 그런들 선교사에게 통하겠는가?

부모와 아이들은 계속 우리학교에서 공부하기를 갈망하는데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너무 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인지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있다.

초등학교 건축과정

어디 쉬운 건축과정이 있을까? 그 중에서도 마음의 부담은 단연 2층 콘크리트 슬라브 공사다. 철근, 자갈을 비롯하여 준비과정만 해도 엄청나다. 드디어 D-day 10월 16~17일, 20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세상



에서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전투에 돌입했다. 그 중에서도 특별 보발꾼 8명이 있으니 이들이 바로 인간 레미콘이다. 생각해 보시라. 53m x 10m의 면적에 15cm의 두께로 옷을 입히려면 비사한 작전수행 능력이 있어야한다. 20ℓ 페인트 통에 가득 담아 발에는 발동기를 달아야 한다. 아이구 난 드는 것도 힘든데 말이다. 훈련된 조교들이었지만 뒷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몹시 피곤하고 햇볕에 온 몸은 따끈 거렸지만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 일에 3만\$이 소

요되었다. 그 일은 형제들, 무학교회, 개미군단이란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여느 선교사들처럼 통 큰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밀려오기도 하지만, 그러면 가슴 졸이는 일도 좀 줄어 들 텐데... 만약 그렇게 되었으면 이처럼 간절한 기도의 울림이 있을까? 작은 물건하나 속에서도 헌금의 깊은 뜻을 이해할까? 그래 이대로도 좋다. 어떻게든 75%의 공정까지 달음질해보자. 그때까진 지쳐도 아파서도 안 된다. 더불어 화장실 공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1층 - 여학생, 2층 - 남학생, 3층 - 빗물저장탑). 지난 번 8만 리터 빗물저장탱크를 만들고 난 후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 하여 초등학교에서 받은 빗물이 화장실 옥상 물 탱크로 바로 흘러들어 가게 하는 작업을 계획 중이다.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와 기도로 교회도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 하나는 우리 지역으로 새로 이사 온 한 가정(남편은 무슬림)이 몇 주 교회를 잘 나왔는데 알고 보니 초등5학년 딸 샤디아가 가끔 귀신에 붙들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빠가 반 강제적으로 다시 회당 기도모임으로 데려갔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머지않아 돌아올 것으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은 지경이 약간 확장(약300평)되었습니다. 인접한 땅 모서리부분 주인이 사정이 있다며 매입을 요청해왔습니다. 마음 한켠으로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또한 감사는, 일전 가까운 선교사님 컨테이너에 유치원의 다양한 필요를 챙겨주신 손길들입니다. 이미 도착하여 잠자고 있지만 곧 대면하리라 기대합니다.

저희 부부는 4013금식, 즉 13주에 이르는 40일 금식을 은혜 중 마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성을 회복하는 은혜를 입고 새벽마다 기도의 여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들 경민이는 휴학을 하고 군(22사단)에 입대하였습니다. 훈련의 과정과 군 생활 적응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직 학교도 어리지만 그럼에도 지역엔 이미 명문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름다운 소문이 더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바라며 초등학교 건축도 원만히 잘 마쳐져 학교등록이 내년엔 마무리되기를 기도와 함께 동참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여전히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헌금과 기도로 함께하여 주시는 꽃밭교회 위에 고마움 전합니다.

기도제목

1. 유치원 아이들과 그들 가정 모두가 구원에 이르도록
2. 초등학교 건축이 원만히 진행되어 학교등록이 속히 되도록
3. 1학년에 진급하는 아이들과 모든 직원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3. 솔로몬 교회(가칭)가 부흥을 이어가도록
4. 탄자니아 정부의 위정자들을 위해
5. 저희 영육의 강건함으로 맡겨진 일 잘 감당하도록

2018년 11월 2일 탄자니아에서 김종수 · 박정애 선교사 올림

E-Mail : tanzania91@gmail.com 카톡 아이디 : tz3927

(국제) - 255 - 786 - 121233 · 국내연락처 010 - 7684 - 5538